

《祖堂集》 代詞 ‘他’의 동격구조 연구

任炳權*

◁ 目次 ▷

- | | |
|--------------|---------------|
| I. 머리말 | 2. 동격 후향의 종류 |
| II. 他의 일반 용법 | 3. 동격 후향의 구조 |
| III. 他의 동격구조 | 4. 동격구와 他의 虛化 |
| 1. 동격구의 담당성분 | IV. 맺음말 |

I. 머리말

《祖堂集》은 唐五代 시기 선종의 언어를 기록한 언어자료인데, 唐에서 五代에 이르는 시기는 他가 삼인칭대사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다시 입말의 다른 삼인칭대사 渠, 伊를 밀어내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 예문에 나오는 他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조당집》에 반영된 唐五代 삼인칭 대사 他에 관한 현상을 살펴보려 한다.

(1) ① 若是佛之与法是建立化儀,禪之与道是止啼之說。諸聖興來,蓋爲人心不等,巧開方便,遂展多門。(鼓山)

저 부처니 법이니는 교화의 의범을 세운 것이요, 禪이니 道니는 아기 울음 달래는 소리다. 저들 여러 성인이 나오심은 모두 사람의 마음이 똑 같지 않아 교묘한 방편을 펼치고 여러가지 문을 연 것이다.

① “如何是菩提?” 師云:“闍梨失却半年糧。” 學云:“爲什麼失却半年糧?” 師云:“只爲圖他一斗米。”(福清)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대는 반년 치 식량을 잃어버렸소.” “어째서 반년 치 식량을 잃었습니까?” “(겨우) 쌀 한 말을 얻으려 탐을 내다보니까.” [참조. 쌀 한 말과 반 년의 양식을 각각 적은 양과 많은 양으로 쓴 예. 因普請般米了坐次云。近日不啣[口留]。祇擔得一斗米。不如快脫去。(古尊宿語錄.雲

* 대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대전대학교의 2000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門匡眞) (啣溜: 민첩하다) 拾得一粒粟,失却半年糧。(禪門拈頌)

예문 (1㉞)에서 他는 앞에 나온 어떤 인물인 '그이' 또는 다른 사람인 '남'으로 해석될 수 없고, 뒤에 이어지는 '諸聖'을 다시 가리키는(중복지칭) 동격구조를 이루게 된다. '他諸聖'은 그냥 '諸聖'을 가리킬 뿐이어서 他가 없어도 뜻은 영향이 없고 어감 표현을 도와줄 뿐으로 추정된다. 예문 ㉞도 마찬가지다.

(2) “昨者母親下世,只有姊獨自無人看待,爭拋得?”

姉却向弟說:“弟莫疑我,某甲獨自取次寄住得,但自去。”弟僧從此裝裹,却去寺主處,具說前事。寺主曰:“師兄若這個善心,某甲身自不能去,得某相共造善因。師兄但去,莫愁其姊,某甲孝順,但喚來他房裏。”其僧一一依他寺主處分,喚姉去寺主房裏安排了,便發去。(一宿覺)

“옛그제 어머니께서 별세하시고 혼자 남은 누나를 아무도 보살필 이가 없는데, 어떻게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누나는 남동생에게 말하길, “동생은 내 걱정은 하지말소. 난 혼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터이니 어서 떠나소” 하였다. 이리하여 그 남동생 증은 짐을 꾸려놓고, 주지에게 가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주지의 말이, “사형이 그런 훌륭한 마음을 내었다면, 나도 스스로 가지는 못하지만 좋은 인연 짓는 일을 도와야겠소. 사형은 누나 걱정은 말고 그냥 떠나시오. 내가 갈 모실 테니 저기 요사(寮舍)로 데려 오시면 되겠오”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주지에게 맡겨 처리하고, 누이를 주지의 요사로 데려가 안둔한 다음 떠나갔다.

예문 (2)에서 '其姊'와 '他房裏'의 其와 他는 얼핏보면 잘못 사용된 말 같다. '그중'(其僧)과 '주지 그 사람'(他寺主: 동격구조)은 괜찮지만, 주지가 어떤 증을 마주하고서 그 증의 누나를 '그의 누나'(其姊)라고, 자신의 요사를 '그의 요사'(他房裏)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3장 11㉞ 참조)

(3) 滂山云:“我身邊還有學禪人不?” 仰山答云:“出山日早,有亦不識禪。” 滂山云:“以汝在日眼目,且滂山有不?” 仰山答:“山中縱有諸同學兄弟,不曾子細共他論量,並不知眼目深淺。” 滂云:“大安如何?” 答云:“不識禪。” “全諍如何?” “亦不識禪。” “志和如何?” “亦不識禪。” “志遇如何?” “亦不識禪。” “法端如何?” “亦不識。” 滂山咄云:“我問,汝愆道不識,什麼意?”…… 滂山云:“行解如何?” 仰山云:“未具天眼他心,不知禪照用處。緣行解自辯清濁業性,屬於意密,所以不知禪。(18.仰山)

위산화상이 물었다. “내 주변에는 선 공부가 된 이가 있느냐?” 양산화상이 대답했다. “위산을 떠났는지 오래 되어서 있다해도 모릅니다.” “네가 위산

에 있던 때의 안목에 의하면 있었느냐?” “산속에 여러 동문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자세한 토론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목의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대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진심[중심]은 어떤가?” “역시 모르겠습니다.” “지화는 어떤가?” “역시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어떤가?” “역시 모르겠습니다.” “법단은 어떤가?” “역시 모르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마다 다 모른다 하는데, 이견 무슨 뜻이나?”……“行解는 어떠한가?” “천안통과 타심통을 갖추지 못하여 (그들이) 照用하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행해는 스스로 淸濁의 業性을 변별하여 (뜻으로 깨달아 아는) 意密에 속하는 것이라서 (남이) 알 수 없습니다.”

예문 (3)의 他는 모두 위산화상의 제자를 가리키는 삼인칭대사 '그이' 또는 '그들'로 해석된다. 그런데 목적이 他를 쓰지 않은 '不識'가 혼용된 점 그리고 문맥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 필요도 없이 남용되었거나 또는 일반적인 삼인칭대사의 기능이 아닌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이상의 세 예문에 쓰인 他의 공통적 특징은 그것이 없으면 읽기가 더 자연스럽고, 또 그것을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별 필요없이 사용된 즉, 말의 명제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他들에 관심을 가진다. 대사는 말의 경제를 위해 즉, 복잡하고 긴 어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낱말이라는 그 본래의 특성에 비춰보면, 이상의 '他'들은 '남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¹⁾ 설명을 종합하면 대사 '他'의 역사는 ①旁指: '다른(別的: 先秦 시기), ②旁稱: '다른 사람(남), 다른 것'(別人, 別的東西: 漢魏六朝 시기), ③삼인칭: '그이, 그것'(他, 它: 隋唐 이후)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현대에는 북경어 입말의 독점적인 삼인칭대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삼인칭대사 他는 唐 때에 稱代의 범위를 사람에서 물건과 사태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唐宋의 근대중국어 이래로 他는 다음과 같은 '虛指'의 용법에 사용되었다.

- (4) ㉠ 你得說他個明白.
너 분명히 얘기해야 해.
㉡ 逛他兩天北京城。²⁾

1) 吳福祥, 向熹, 盧列紅, 郭錫良, 唐作藩.

북경이나 한 이를 잘 놀러다녀야겠다.

- ㉔ 你這月盡頭,到的北京麼,到不得? 知他,那話怎敢說! 天可憐見,身己安樂時,也到.
(老乞大1)

이달 말에 북경에 도달할 수 있겠어? 압니까!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불쌍히 봐주고 몸이 건강하면 당췌지요.

- ㉕ 既不異靈山,諸仁者作麼生相體悉。也莫泥他古今,但彼此著些精彩,大家驗看是什麼。(傳燈錄21.智作)

기왕에 (석가모니의) 영산에서의 일(엄화미소)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는 길게 할 것 없고, 우리 서로 정성을 좀 들여서 다함께 이게 어떤 것인가를 중험해 봅시다.

우리는 이들 虛指의 他가 위에서 든 남용된 他들에 濫觴을 두고 있지 않을까에 주목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연구범위를 좁혀 《조당집》 他 동격구조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후 동격구조를 이룬 他는 'r他'로 표시하고, 논의 대상이거나 참조할 만한 어구에는 '他, 渠'와 같이 표시함)

II. 祖堂集 他的 일반 용법

《조당집》에 나오는 '他'의 일반적인 용법과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삼인칭대사: '그이, 그것'을 뜻하며, 현대의 '他(她), 它'에 해당하는 稱代의 기능을 함. '他個, 他家'로도 쓰며, 단복수에 겸용되고, 주어·목적어·관형어·겸어를 담당함.
- ② 旁稱 인칭대사: '다른 사람(들), 남(들)'을 뜻하며, 현대의 '別人, 旁人'에 해당하는 稱代의 기능을 함.
- ③ 旁指 지시대사: '다른'을 뜻하며, 현대의 '別的'에 해당하는 指示의 기능을 함. 또 '미래'와 '다른 곳'을 지시하는 관형어로도 쓰임.

비교적 특수한 현상으로는 他가 장소와 시간을 指別 및 稱代하여 '밖, 다른 곳'과 '미래, 이후'를 표시하는데도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삼인칭대사.

- ㉖ “他个則与摩,別是个道理,只今作摩生道則得?”(安國)

그는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한 도리이고, 지금은 어떻게 말

해야 되겠는가? 참조: 他家怎麼問,別是箇道理,如今作麼生道?(五燈會元.安國)

- ① <내포문 주어> 師有時云:“靈利參學底人更不到這裏來.” 僧問:“既不到這裏來,和尚爭得委他靈利?” 師云:“只見他不到這裏來,委他靈利.” (10.長慶)

“영리한 남자가 이젠 통 오질 않아.” “여기에 오지도 않았는데 화상께서는 어떻게 그가 영리한 줄을 아십니까?” “여기에 안 오는 것을 보면 그가 영리한 줄을 아는 거지.”

- ② 若言卽心卽佛,如兔馬有角. 若言非心非佛,如牛羊無角. 你心若是佛,不用卽他. 你心若不是佛,亦不用非他. (南泉)

마음이 곧 부처라 말한다면 토끼나 말에게 뿔이 있다는 것과 같고,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말한다면 소나 양에게 뿔이 없다는 것과 같다. 그대 마음이 만약 부처라면 애써 기다고 할 것이 없고, 그대 마음이 만약 부처가 아니라면 애써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

- ③ 仰山云:“怪和尚把大家底行人事.” 滄山云:“汝不見? 蓮塵從西天來,亦將此物行人事. 汝諸人盡是受他信物者.” (仰山)

“넌 모르나? 달마가 서천에서 올 때도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치렀어. 너희들은 모두가 그 선물들이야.” [달마가 가져온 그(那), 달마의(他的)]

- ④ 師云:“門前把弄不如老僧,入理之譚欠他三步.”(7.夾山)

문 앞에 펼쳐놓는 것은 내가 더 낫고, 진리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그(石霜)가 세 걸음 앞섰다.

- ⑤ 師敲繩床,謂衆云:“大眾共他語話.” 對云:“却請和尚共他語話.” 師云:“我不共他語話.” 僧云:“爲什麼不共他語話?” 師云:“不辭共他語話,恐他不解語.” (16.南泉)

선사께서 승상(繩床)을 두드리고 대중에게 말했다. “대중은 애하고 이야기를 해보라.” “화상께서 좀 개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안해.” “어째서 안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애가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서.”

(2) 방칭의 인칭대사

- ① 問:“如何是祖師西來意旨?” 師曰:“何不問自家意旨? 問他意旨,作什麼?”(老安)

- 2) 信物: ‘선물, 예물.’ 子胥……懷中璧玉, 以贈船人. ……子胥慮嫌信少, 更脫寶劍相酬. ……子胥見人不愛, 情中漸覺不安. 心口思惟, 慮恐船人嫌我信物輕少. (伍子胥變文)

- 3) 이 읽기는 월운스님, 柳田, 禪藏, 吳福祥 등과 다름. 禪藏은: ‘門前把弄, 不如老僧入理之譚, 欠他三步.’ 월운스님: ‘문 앞에서 붙들고 희롱하는 것이 노승의 진리와 맞는 이야기에 미치지 못함이 세 걸음 사이니라.’ 把는 擺의 뜻; 欠은 ‘떨어지다, 부족하다’의 뜻.

유판 예문 참조: 僧後問石霜:‘撥塵見佛時如何?’ 霜曰:‘渠無國土, 甚處逢渠?’ 僧回舉似師, 師上堂舉了, 乃曰:‘門庭施設, 不如老僧, 入理深談, 猶較石霜百步.’ (五燈會元. 夾山) [巖]頭又作掀禪鉢勢. [夾山]師曰:‘大眾看這一員戰將, 若是門庭布列, 山僧不如他. 若據入理之談, 也較山僧一級地.’ (五燈會元. 夾山)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왜 자기 뜻은 묻지 않는가? 남들(祖師)의 뜻은 물어 무엇하려고?”

㉞ 德山云:“擔負己身,詢_龍輕重!” (雪峯)

덕산이 말했다. “짐은 제 몸에 지고서, 남에게 무게를 물어?”

㉟ <겸어> 教有明文:‘自得度,令_龍得度;自解脫,令_龍解脫;自調伏,令_龍調伏;自寂靜,令_龍寂靜;自安穩[隱],令_龍安穩[隱];自離垢,令_龍離垢;自清淨,令_龍清淨;自涅槃,令_龍涅槃;自快樂,令_龍快樂.’ (14.馬祖)

경전에 분명히 쓰여있다. “스스로를 제도한 뒤에 남을 제도하고, 스스로가 해탈한 뒤에 남을 해탈케 하고, 스스로를 조복한 뒤에 남을 조복하고, 스스로를 고요한 뒤에 남을 고요히 하고, 스스로가 편안한 뒤에 남을 편안케 하고, 스스로가 때를 벗은 뒤에 남의 때를 벗기고, 스스로가 깨끗한 뒤에 남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가 열반에 든 뒤에 남을 열반에 들게 하고, 스스로가 즐거운 뒤에 남을 즐겁게 하라.”

㊱ 或爲人所使,事畢却還,彼所有智者,每勸之曰:“和尚是高人,莫與_龍所使.” 師云:“我自調心,非關他事.” (2.慧可) <피동구조>

때로는 남의 심부름을 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곳 현인들이 매번 권고했다. “화상은 덕높은 분인데, 남에게 부림을 당하시면 안 되지요.”

㊲ <장소> 召門人曰:“吾將_龍往,今須永訣.” (通曉)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니, 이제 길이 헤어져야겠구나.

㊳ 師乃頓息疑情,更無_龍遊. (寶峯)

스님은 이에 단번에 의심을 끄고 더는 다른 곳에 유력하지 않았다.

(3) 방지의 지시대사

㉠ 若能如是體會,何處更求_龍方淨土及佛也?(順之)

만약 이렇게 깨달아 알면 어디에서 탄 부처와 탄 정토를 구하라?

㉡ 衆生與佛雖同一性,不妨各各自修自得. 看_龍人食,終自不飽. (慧忠)

중생이 부처와 성품은 똑 같지만 각자 스스로 수행하고 증득해야 한다. 남이 식사하는 걸 바라본들 끝내 자기 배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 <시간> “_龍時後日魔魅人家男女去在!” (巖頭)

뒷날엔 남의 집 남녀들을 홀릴 터이다.

㉣ _龍日_龍溪山密離宴室,獨步林泉. (雲岳)

다음 날, 위산이 가만히 방을 떠나 숲 개울을 걷고 있었다.

III. ‘他’의 동격구조

동격구조는 지칭대상이 동일한 둘 이상의 어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문장성

분을 구성하는 특수한 구조를 말하며, 동일 사물을 복수 어구가 중복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複指구조로도 말한다. 현대중국어의 동격표현은 의미관계에 따라 重疊 稱代 總分의 세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각각 다음과 같다.

- (1) ㉠ 他這個人真是心太軟.
그(라는 인간)는 정말로 마음이 약해. [B인 A]
㉡ 看人家小董多有禮貌啊!
소화 저 에 좀 봐라, 얼마나 예절 바르니! [A인 B]
㉢ 你們倆好好聊聊吧!
당신네 두 사람은 사제간에 이야기 잘 나누세요. <삼행동격구>
- (2) 商品這東西,千百萬人,天天看它,用它,但是熟視無睹.
이 상품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보고 쓰지만 익숙해서 인식을 할 못 한다.
- (3) 這次來中國旅遊,去了不少地方,北京上海杭州和廣州等.
이번 중국여행에서 여러 곳, 북경 상해 항주 그리고 광주 등을 가봤다.
這次比賽我們班有小明小麗兩個人參加.
이번 시험에는 우리반 소명과 소리 두 사람이 참가한다.

동격구조를 이루는 대사 他는 稱代의 기능을 하는 인칭대사로서이며, 旁指의 지시대사 '다른'으로는 관형구조를 이루게 된다. 《조당집》에 보이는 동격구조의 他는 거의 모두 삼인칭대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旁稱으로 동격구조를 이루는 예도(4 ㉠, 9㉢) 드물게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위 예문(1)의 중첩복지에 해당하는 '代詞+명사(구)'의 형식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4) ㉠ 師云:“秀才曾見什麼老宿?” 秀才云:“曾見徑山和尚.” 師云:“徑山和尚還有妻不?”
對曰:“他徑山和尚眞素道人,純一無雜.” (西堂)
“경산화상께 아내가 있었는가?” “그분 경산화상께서는 진짜 도인으로 잡된 것 하나 없이 순수했습니다.”
㉡ 師在京中赴內齋,他諸名公悉皆轉經,唯有師與弟子不轉經.(華嚴) 참조: 師因赴王齋次,諸聖盡轉經,唯有師不轉經.(般若多羅)
스님께서 서울에 계시실 때 황제의 탄신 축복공양에 초청받아 갔었는데, 여러 이름난 스님(남들)은 모두 독경을 하였지만 스님과 제자만은 독경을 하지 않았다.
(5) “何故如此?” 師曰:“書卷不曾展.” 後有人舉似石霜, 石霜曰:“不曾展他書卷.” (藥山)

“어째서 그랬지요?” “책을 통 안 펴봤거든.” 나중에 어떤 이가 석상에게 이 일을 드니, 석상이 말했다. “책 같은 건 펴본 적이 없었거든.” <과거시제, 홀시의 느낌>.

(6)㉠ “所以解修行底人不落因果,不解修行底人落_他因果。”(南泉)

그러므로 수행할 줄 아는 이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할 줄 모르는 이는 인과에 떨어진다.

- ㉡ “擬議終成山海隔,辨面渾機直下全,更欲會_他泥牛吼,審細須聽木馬嘶。”(惟勁)
헤아리면 마침내 산과 바다로 갈리고, 얼굴 맞대니 전체가 당장 완전하네,
다시 진흙 소 영각을 알려거든, 나무 말 울음을 자세히 들으라. <음절수 >

이들 동격구조의 前項인 他는 指別아닌 稱代의 기능을 하여 즉, 他에 범위한정과 지시의 기능이 없어, ‘他+後項’은 대체로 ‘후항 그 자체’의 의미이다. 예를들어 (4. ㉠)의 ‘他_他徑山’은 앞에 언급된 ‘경산화상’을 지칭하는 삼인칭대사 他와 그 뒤에 다시 온 ‘경산화상’이 동격구조를 이루어 ‘그분 경산화상’ ‘경산화상 그분’등으로 해석된다. ‘여러 경산화상 중 이 경산화상’ 말고 ‘다른 경산화상’이나 ‘그 경산화상’으로 읽을 수는 없다.

《조당집》의 他 동격구조는 거의 모두 두 개의 복지성분으로 구성된 二項동격이지만, 드물게 三項동격이 보이는데 예문 (4㉠)의 ‘他_他徑山和尙’과 다음 예문 (7)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예문(1㉡) ‘你們師徒倆’와 같은 형식이다.

(7) “若見_他祖宗苗裔,上上根性;如西天諸祖,此土從上祖,相承或一玄機,或一境智,他便肯去,玄得自理,不居惑地,更不隨於文教。”(徑山)

“저 祖師·宗師의 후예인 최상의 근기들을 보면, 天竺의 조사들과 이 땅의 옛 조사들이 그랬듯이, 하나의 玄機나 境智를 물려받으면 그들은 곧 기꺼이 그리로 나아가 그윽히 제 이치를 얻고 미혹을 벗어났으며 다시는 문자의 교법에 휩쓸리지 않았다.”

[‘他祖宗苗裔上上根性’은 ‘저들 조종의 후예라는 최고의 근기들’로 해석되어, ‘上上根性’이 ‘祖宗苗裔’를 해석함.]

1. 他 동격구의 담당 성분

他의 동격구는 《조당집》에서 주어 겸어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동격구 내부구조의 분석과 관련하여 명백히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他 동격구가 담당하는 문장성분의 종류와 그 지칭 대상의 의미적 특성 즉, 인간·물건·사태 및 泛指·確指 등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주어>

- ㉠ “四大違和,還有不病者也無?” 師曰:“有.” 僧曰:“不病者還看和尚不?” 師曰:“某甲看他則有分,他誰彩某甲?” 僧曰:“和尚病爭看得他?” (洞山)
 “몸에 병이 나셨는데, 병안드는 놈은 있습니까?” “있지.” “병안드는 놈이 화상을 보나요?” “내가 그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누가 나를 본단 말인가?”
- ㉡ 大不容易! 諸和尚不見? 他古老接示一開一合便悟…… (禾山)
 참으로 어렵구나! 여러 스님네들은 보지 못하였는가? 저 옛 노덕들은 제접·계시하여 한번 열거나 한번 닫으면 (제자들이) 곧 바로 깨달았다.

(9) <겸어>

- ㉠ “二百來个新到不得參見和尚,因此啼哭.” 師云:“喚他來隔窓相看.” 侍者便喚他新到一際上來隔窓礼拜,問:“咫尺之間爲什麼不覩尊顏?” (石菴)
 그러자 시자가 그 신참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올라와 창 밖에서 예배하게 하였다.
- ㉡ 天地洞然,一切事如麻如草…… 若明自己事,即轉他一切事爲開梨自己受用具…… 若體會不盡,則轉他一切事不去. 若體會得妙,則轉他一切事向背後爲僮僕著. (曹山)
 자기 일을 밝히고나면 모든 일을 그대들 자신의 살림도구로 바꾸게 될 것이다…… 만약 다 체득해 마치지 못하면 모든 일을 (자신의 살림도구로) 바 꾸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묘처를 체득해내면 곧 모든 것이 僮僕으로 변하여 모시게 될 것이다.” [가능보어 앞에 온 목적어]
- ㉢ 与摩道也未免招他諸方明眼人不肯.” (報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방 눈밖은 이들의 긍정을 받지 못하게 틀림없다.
- ㉣ 欲得大用現前,但可頓亡諸見. 見量若盡,昏霧不生,智照洞然,更無物与非物. 今時學人觸目有滯,盖爲依他數量作解,被他數量該括得定,分寸不能移易. (落浦)
 만일 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당장에 모든 소견을 없애라. 소견의 작용이 사라지면 어두운 안개가 일지 않고 지혜가 환하게 비추어 더이상 외물 이고 말고가 없게 되리라. 요즘의 학인(學人)들은 눈에 닿는 것마다에 걸리는 데, 그 까닭은 모두 세고 헤아림에 의해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그놈의) 헤아림에 꼭 붙잡혀서 한 치도 옮기지를 못한다.

(10) <목적어>

- ㉠ “青山白雲父,白雲青山兒,白雲終日依,青山都不知.”…… 因此曹山大師造頌曰:“今年田不熟,來年種有期,愛他年少父,須得白頭兒.” (隱山)

“청산은 백운의 아버지, 백운은 청산의 아들. 백운은 종일토록 기대고 있어도, 청산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나이 젊은 아버지를 사랑하면, 반드시 머리 흰 아들을 얻게 되리.”

- ㉠ 諸供奉曰：“我等諸人謾作供奉，自道解經解論，據他禪宗都勿交涉。”(慧忠)
“우리들은 헛되이 공복으로 있으면서 경을 안다 논을 안다 했구나. 선종에 견주건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 ㉡ 若不明自己事，乃至開梨亦與他諸聖爲緣，諸聖與開梨爲境，境緣相涉無有了時；如何得自由？(曹山)
만일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하면 설사 그대가 여러 성인과 인연을 맺고, 여러 성인이 그대의 경계가 되어 경계와 인연이 서로 어울려도 깨달을 시기가 없으리니, 어찌 자유로울 수가 있으랴.
- ㉢ 禪客曰：“無情既有心，還說法也無？”師曰：“他熾然說，恒說常說無有間歇。”禪客曰：“某甲爲什麼不聞？”師曰：“汝自不聞，不可妨他有聞者。”進曰：“誰人得聞？”師曰：“諸聖得聞。”進曰：“誰人得聞？”師曰：“諸聖得聞。”禪客曰：“與摩卽衆生應無分也？”師曰：“我爲衆生說，不可爲他諸聖說。”(慧忠)
“그대야 못 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것을 어찌겠나?”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인들은 들을 수 있지.” “그렇다면 중생들에겐 해당이 없겠군요?” “나는 중생을 위해 말하는 것이지 성인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
- ㉣ 又到香巖問：“不從自己，不重他聖時如何？”(疎山)
“자기를 따르지도 성인들을 존중하지도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와 대비되는 ‘저들 성인’, ‘다른 성인’이 아니라. 참조: “不慕諸聖不重己靈時如何?”(4.石頭))

2. 동격 후향의 종류

동격구조의 후향에 사용된 어구가 어떤 종류의 의미를 표시하는가는 곧 대사 그의 칭대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의미하게 된다. 《조당집》他 동격구의 後項에 쓰인 명사들은 인간 물건 사태 개념을 표시하며, 따라서 이들을 중복지칭하는 전향 그의 지칭기능의 범위 역시 이들 네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각각 예문 4, 5, 6 참조)

그런데, 동격구조 후향에 시간·장소의 어구를 쓴 특수한 예도 소수 보인다. 다음 예문들에 의하면, 他的 기능범위가 시간의 旁稱인 ‘다른 때, 뒷날, 미래’와 장소의 방칭인 ‘다른 곳, 바깥’과 장소의 삼인칭인 ‘그곳, 거기’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제2장의 2㉠㉡: 3㉢㉣)

(11)㉠ <他=他時 ‘뒷날’> 蘇由奏曰：“有大聖人生於西方。”又問：“於天下如何？”由曰：

“則時無也，他一千年外，聲教被於此土。”(1.釋迦) (則=卽)

“큰 성인이 서쪽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천하(중국)에는 영향이 어떻겠는가?” “당장에는 없사옵고 천년 뒤에는 그 교범이 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 洞山云：“閻梨他後住一方時忽有人問，作摩生向他道？”(雲居)

그대가 뒷날 한 곳의 주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문득 물으면 그에게 무어라 말하겠는가?

㉡ <他=他方 '밖'> 此皆屬所依之法，不得自在。本只爲生死忙忙，佛法依著，識性無有自在分。他千里求善知識。須有眼目永脫虛謬之見，不墮幻惑之法，方達後人。(7.夾山) 참조: 本祇爲生死茫茫，識性無有自有分，千里萬里求善知識。須具正眼，求脫虛謬之見。(五燈會元.夾山)

이는 모두가 의지 대상인 법(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본래는 단지 끝없는 생사를 반복하며 법마다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識性이 자유로워 질 수가 없었고, 천리 밖으로 선지식을 찾아 다니게 된 것이다.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 허망한 소견을 영원히 벗어나고 미혹된 법에 떨어지지 않아 비로소 뒷 사람을 열어줄 수 있다.

㉢ <他=那兒 '거기'> 雲岳云：“作摩生是異類中事？”師云：“豈不見道？‘智不到處切忌說著，說著則頭角生。’喚作如如，早是變。直須向異類中行。”…… 藥山云：“南泉近日有什摩方便，示誨學徒？”雲岳學似前話。藥山云：“汝還會他這個時節也無？”雲岳云：“某甲雖在他彼中，只爲是不會他這個時節，便特歸來。”(南泉)

“그대는 그 경지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있었지만 그 경지를 할 수 없어서 특히 스님께 왔습니다.”

㉣ 師問僧：“汝從什摩處來？”對曰：“南泉來。”師曰：“在彼中多少時？”對曰：“經冬過夏。”師曰：“与摩則作一頭水牯牛去也。”對曰：“雖在彼中，不曾上他食堂。”(藥山)

“그러면 한 마리 물소가 되었겠군.” “거기 있었지만 식당 같은 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차며 나물밥은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본고에서 他의 동격구조로 취급한 60여 개의 예에 사용된 동격 후항의 명사구를 의미와 구조에 따라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

1. 泛指(어떤 범위의 모든 사람):

諸聖，菩薩，上上之流，先聖，聖，祖宗苗裔，禪宗，諸方明眼人，諸名公，古老，有聞者，年少父，中下.

2. 確指(어느 특정인): 徑山，人天善知識(백장회해)，新到，寺主，老宿，誰

(2) 물건:

童子頭：無情(식물과 무생물)，書卷(서적)，一斗米，一點.

<3> 사태 및 개념:

有言, 數量, 是龍是蛇, 不爲我說破. [동사구]

虛空, 正因, 因果, 見解, 行解, 大意, 名, 姓. [추상개념]

身前不生不滅, 二邊中道義海, 一切事, 了事言語, 這個時節, 這個事. [관형구조]

泥牛吼, 古老吟, 辟支弗禮, 雪峯過, 先聖方便, 千經万論說成底事. [有情+행위]

雲岫道德, 衆生善惡二根. [有情+개념]

<4> 시간처소: [그곳]房裏, 彼中, 食堂, 知有處, 什摩處: [밖]千里; [뒷날]後, 一千年外.

구가 동격구조의 후향으로 쓰인 경우, 그것은 대부분이 관형구이며 동사구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비교적 특수한 동격후향으로는 동격구조를 포유한 것(17), 그리고 매우 긴 형태의 것(13) 등이 있다. 동격후향에 동사구나(12:15②) 길고 복잡한 구가 온 예문에서는 他가 목적어인 이들 후향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일종의 구조표지처럼 보인다.

(12) <동사구 후향>

① 僧曰:“爲什摩承當不得?” 師曰:“汝爲什摩泥_他有言?” 僧曰:“与摩則無言.” 師曰:“非無言.” 僧曰:“無言爲什摩却非?” 師曰:“不是無言.” (洞山)

“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그대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걸 고집하나?” <그 有言이란 놈의 것>

② 師又時問:“僧堂中有一千餘人, 爭委得_他是龍是蛇? 又不通个消息.” (雪峯)

“승당 안에 천 여 명이 있는데 누가 용이고 누가 뱀인 줄을 어떻게 알지? 소식도 도무지 통하지 않고!”

(13) <긴 후향> 仰山云:“……告諸學人, 莫勤精進, 懈怠懶墮, 空心靜坐, 想一个無念無生, 想一个無思無心. 論_他身前不生不滅, 二邊中道義海, 是他人光影.” (仰山)

……“코 앞의 불생불멸이나 二邊과 中道の 이치를 따진다면 이는 남의 그림자(를 잡으려하는 짓)이다.” <一个와 함께 '하찮음'의 느낌 >

3. 동격 후향의 구조분석

대사 他 뒤에 관형구 또는 有情⁴⁾인 단어가 이어져 동격구조를 구성할 경우에는

동격후항의 특정 즉, 동격구의 범위에 관한 구조분석상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후항의 특정에 관한 구조분석 문제는 동격구가 문두의 주어에 온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모두 술어 부분에 사용된 경우이다. 본고는 이 경우의 동격구들을 모두 목적어 또는 겸어(14㉔)로 분류한다.

목적어로 분류된 유형의 예문들은 그 구조관계에 따라 네 가지로(14-17) 나눌 수 있다. 다음 (14)는 동격후항의 관형구조가 분명하고 이를 他가 중복지칭한 예인데, ①'他了事言語'의 후항에는 有情이 포함되지 않았고, ㉔은 후항의 중심어가 有情이다.

(14)㉔ “切囑第一莫向舌頭上取辦。記_他了事言語,有什麼用處?”(雲岳)

“간절히 당부컨대 무엇보다도 혀끝에서 취하지 말아라. 다 끝난 일(사업)의 언어들이나 기록해 어디다 쓰겠는가?”

㉔ 與摩道也未免招_他諸方明眼人不肯.”(報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방 눈 밝은 이들의 긍정을 받지 못할게 틀림없다.

㉔ “更有_{歸宗}敲鼎擊拈布毛拋拂子,當用無用,如啐啄之機,是_他上上之流始得.”(禾山)

“또 귀종스님이 술을 두드리고 주먹을 치켜들고 모포를 집어 들고 털개를 던지고 한 일들이 있는데, 작용 그대로가 작용이 없는 것이어서, 마치 병아리와 암탉이 알을 깨는 것과도 같으니, 최상의 근거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㉔ “老僧_{江西}在這裏坐,山河大地森羅万像惣在這裏,所以嫌他與摩唾.”……後鼓山舉此因緣云:“古人則與摩,是你諸人菩薩境界尚未得,又故則嫌_他菩薩. 雖則是嫌,但以先證得菩薩之位,後嫌也嫌. 老僧未解得菩薩之位,作摩生嫌_他這個事?”(江西)

……“옛사람이야 그러했지만, 여러분은 보살의 경계도 아직 못 얻었으면서 보살을 싫다 한다. 비록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먼저 보살의 지위를 증득하고 나서 싫어해도 싫어하라. 노승은 보살의 지위를 얻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그 일을 마땅찮다 하라?”

다음 (15-17)은 동격후항의 첫머리에 有情이 와서 他의 지칭범위에 관한 어감의 판단이 유동적인 예들이다.

다음 (15)는 후항이 '有情+행위·개념·물건'의 유형인 예들이다. 이 가운데 '행위'(吟, 呌)의 후항을 쓴 예들은 '他+유정'의 동격구가 '행위'의 관형어로 분석될 상당한

4) 본고에서는 행위나 인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명사 즉, animate를 有情이라 부름.

가능성이 인정된다. 겹어인 동격구와 유사하게. 예문 ㉠에서 ‘他古老吟’을 동격구조로 보면 ‘옛어른 그분들이’ 목적어 ‘吟(노래)’의 관형어로 되며, ‘他古老吟’ 전체를 동격구조로 보면 ‘옛어른의 그 노래’가 동사 ‘求’의 목적어로 된다. 전자의 경우, 他是 인간인 ‘옛어른’을,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인 ‘노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此生事,吾不說,玄旨求他古老吟,禪學須窮心影絕.” (香嚴)

“금생의 일 나는 말하지 않느니, 옛 사람 노래에서 그윽한 뜻 구하고, 선 닭아 마침내 마음 그림자를 끊으리.”

- ㉡ “擬議終成山海隔,瓣面禪機直下全,更欲會他泥牛吼,審細聽馬嘶.” (惟勤)
헤아리면 마침내 산과 바다로 갈리고, 얼굴 맞대니 전체가 당장 완전 하네, 다시 진흙 소 영각을 알려거든, 나무 말 울음을 자세히 들으라. <음절수>
- ㉢ 適來有一个僧未得喫飯,欲供養得摩?…… 師曰:“此是辟支弗僧,所以與摩說.” 進問:“和尚是凡人,作摩生受他辟支弗禮?”(馬祖)
……“스님께서서는 범인(凡人)으로서 어떻게 그런 벽지불의 절을 받으셨습니까?”
- ㉣ 問:“師見南泉,因什摩爲雲岳設齋?” 師曰:“我不重他雲岳道德,亦不爲佛法,只重他不爲我說破.” (洞山)
“스님은 남전을 뵈었으면서 어째서 운암스님의 재를 지냈습니까?” “나는 운암스님의 크신 도덕을 중시하거나 불법을 위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나에게 설파하지 않은 것을 귀중히 여길 뿐이다.”
- ㉤ 翠岳持師語,舉似疎山, 疎山云:“雪峯打二十棒,推向屎坑裏著.” 翠岳云:“和尚與摩道,豈不是打他雪峯過?” 疎山云:“是也.” 岳云:“眼又作摩生?” 疎山云:“不見‘心經’云‘無眼耳鼻舌身意’?” 岳不肯云:“不是,和尚.” 疎山無言.(雪峯)
“화상의 그 말씀은 설봉의 허물을 벌주신다는 것이지요?”
- ㉥ “灼然吾徒等輩爲不承他先聖方便,今日向什摩處填溝塞壑?” (保福)
“분명 우리들은 저 옛 성현들의 방편을 알아 받들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어느 골짜기 어느 구렁텅이를 메우게 되겠는가?”
- ㉦ 其僧便摩童子頭…… 主事又向和尚曰:“比來昨日無端打鼓,要伊勘噴,爲什摩却打他童子頭?” (道吾)
“그는 어제 까닭없이 북을 친 것만으로도 꾸짖음을 받아야 하거늘 어째서 도리어 동자의 머리를 때립니까?”

다음 (16)은 후항 첫 말인 ‘有情’이 뒷 동사와 주술구조를 이룬 경우로서, 주어인 동격구의 예와 유사하다. ‘他千經萬論’을 동격구조로 보면 ‘수천 수만의 경론 그것들’

이 '說成底'와 주술구조로 결합한 다음 목적어 '事'(일들)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된다. '他千經万論說成底事' 전체를 동격구조로 보면 '수천 수만의 경론에 말한 일 그것들'이 동사 '見'의 목적어로 된다. 이때 他는 각각 물건인 '경론'과 사태인 '일(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6) “你見_他千經万論說成底事,不得自在,不超始終,盖爲不明自己事。”(曹山)
 “그대들이 저 많은 經論에서 말쑤한 일들을 보았으되 자유를 못 얻고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기 일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17)은 후항이 '有情+동격구'인 특수한 구조의 예이다. '他衆生'을 동격구조로 보면 '그들 못생령'이 '善惡二根'의 관형어로 되며, '他衆生善惡二根' 전체를 동격구조로 보면 '선악이라는 중생의 두 뿌리 그것들'이 동사 '斷'의 목적어로 된다. 이때 他는 각각 인간인 '중생'과 개념인 '善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7) 有照成寺達性禪師讚嘆,問:“其理甚妙! 眞妄雙泯,佛道兩亡,修行性空,名相不實.如是解時,不可斷_他衆生善惡二根,可是菩提耶?”(本淨) 참조; 作此解時,不可斷_他衆生善惡二根.(五燈會元.本淨)

조성사의 달성선사라는 이가 찬탄하며 여쭙었다: “그 이치가 심히 미묘하옵습니다! 眞·妄이 함께 없어지고 佛·道가 모두 사라지며, 수행의 성품이 비어있고 이름과 형상이 실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저 중생의 선악의 두 뿌리를 끊을 수 없을 터이니 이를 보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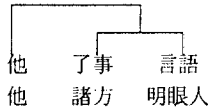
이상으로 설명한, 목적어로 분류된 복잡한 동격구의 예들을 구조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유형별 구조분석 그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他+관형어+중심어> (예문 14)
 有情이 포함안된 후항: 他了事言語, 他上上之流, 他這個事, 他這個時節, 他什麼處, 他知有處.
 有情이 중심어인 후항: 他諸方明眼人, 他人天善知識,
- ② <他+有情+행위·개념·물건>
 <有情+동·명사> (예문15): 他古老吟, 他泥牛吼, 他辟支弗礼, 他雪峯過, 他先聖方便, 他雲岳道德, 他童子頭,
 <他+假有情+동사·...> (예문16): 他千經万論說成底事,
 <他+有情+동격구조> (예문17): 他衆生善惡二根,

동격구를 목적어·겸어로 보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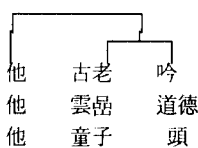
관형어로 보는 분석

<구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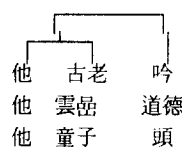


<구조 15>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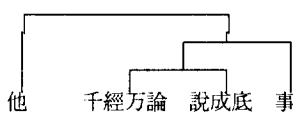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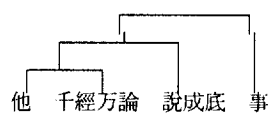


<구조 16>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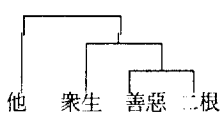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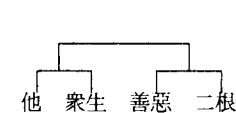


<구조 17>

(a)



(b)



이처럼 예문 (15-17)은 동격구를 목적어 또는 목적어의 관형어로 보는 두 가지 구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모두 목적어로 보는 분석을 취하였다. 이것은 후항의 첫머리에 有情이 온 이 세 종류를 그렇지 않은 윗 (14)의 종류와 동질적인 구조로 처리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앞에서 말한대로 인칭대사로서의 용법을 확립한 후의 他的 稱代 기능이 '사람-물건-사태-개념'의 순서를 거쳐 '그이: 他, 她'에서 '그것: 牠, 它'으로 발전되었다고 인정되는데,⁵⁾ 《조당집》 동격구조의 他가 이미 사태나 개념을 지칭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분명 관형어로 분석될 예가 있겠지만, 문장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분석을 할 경우 그 어감을 확신할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문 (15㉔, ㉕)를 보면 '他辟支弗禮'는 '그분 벽지불의 절이고, '他先聖方便'는 '옛 성현의 저 방편들'인 듯하지만, 두 종류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예

5) 呂叔湘(1985)은 他的 指物용법이 指人용법보다 늦은 唐代 중엽 이후로 봄.

문 (12,13)의 긴 동격후향들은 뒷 명사구 전부를 동격후향으로 보는 분석을 지지한다. 그리고, 《조당집》 내 다른 대사의 동격구조에서는 동격구가 목적어의 관형어로 쓰인 예들이 보이지만 이들의 동격구의 성격은 그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보인다.⁶⁾

4. 동격구와 他의 虛化

이상에서 논의한 동격구 속의 他는 본래 중복지칭구조라는 특성상 指別과 稱代의 기능이 약한데, 그 지칭 대상의 출현상황에 따라 의미의 허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지칭대상이 앞에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뒤에 나오는 '동격후향 그것'을 지칭할 뿐인 他이다. 이 종류의 他는 虛指의 용법으로 보게 되며, 지시작용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현대중국어의 예와 다른 점은 他 뒤의 어구가 용언 아닌 체언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8)㉠ 師問僧：“什麼處去？”對云：“山下去。”師云：“第一不得謾王老僧。”對云：“終不敢謾和尚。”師遂將瓶噴水，云：“是多少？”僧（無對）。師代云：“非師本有。”又云：“非和尚境界。”保福代云：“和尚圖他一斗[豆+斗]米，失却半年糧。”（南泉）

“화상계선 쌀 한 말을 탐내시다 반년 식량을 잃으셨습니다.”

㉡ 問：“如何是涅槃？”師云：“清猶清，急猶急，浮沙何處停？”僧詰問：“如何是清猶清？”師云：“混他一點不得。”“如何是急猶急？”師云：“轉目看不見。”“如何是浮沙何處停？”師云：“金屑雖貴，眼裏著不得。”（16.南泉）

『어떤 것이 열반(涅槃)입니까?』 『맑고도 맑고, 급하고도 급하다. 떠다니는 모래가 어디에 머무르랴?』 『어떤 것이 맑고도 맑은 것입니까?』 『한 점도 흐릴 수가 없어.』 『어떤 것이 급하고도 급한 것입니까?』 『눈알을 굴리면서 보아도 볼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떠다니는 모래가 어디에 머무르리요 하는 것입니까?』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하나 눈에 넣을 수 없느니라.』

㉢ 有大德問：“如鏡鑄像，像成後鏡明向什麼處去？”師曰：“如大德未出家時相狀向什麼處去？”進曰：“成像後爲什麼不鑿照？”師曰：“雖然不鑿照，他一點不得。”（3.懷讓）

『거울이 상을 빚을 때, 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울의 밝음이 어디로 갑니까?』 『마치 대덕이 출가하기 전의 모습과도 같으니,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

6) 《조당집》 기타 대사 동격구조의 관형어 용례:

목적어의 관형어: 背後指定著他自己照用處, 業性亦不識。(仰山)

‘我以心傳心, 不立文字.’ 且作摩生是汝諸人心? 不可只是亂統了便休去。(雲峯)

전치사목적어의 관형어: 諸方多有說成底禪師, 在你諸人耳裏忽滿也。(曹山)

겸어구조 속 목적어의 관형어: 若明自己事, 即轉他一切事爲他鑿自己受用具。(曹山)

까?』 『상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찌하여 비취보지 않습니까?』 『비취보지는 않지만 한 점도 축여닐길 수는 없습니다.』

- (19) 圓茶頭問：“志圓爲什麼勿奈何？” 師云：“非但一个，閩國人亦勿奈何。” 進曰：“和尚如何？” 師云：“我亦勿奈何。” 進曰：“師是人天師，爲什麼勿奈何？” 師云：“老僧不曾得他顏色，教我作摩生？”(6.石霜)

“나는 그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나더러 어찌란 말인가?”

- ① 大德身上是他衣，堂裏是他食，燈油火炭，床榻臥具，十方信心供須。將何道業消受？(19.香巖)

여러분 몸에 걸친 옷, 식당에 준비된 음식, 등불의 기름, 불 때는 숯, 평상과 걸상, 그리고 침구 이 모두가 시방 시주들이 마음에 우러나 공양한 것입니다. 장차 어떤 도업으로 그것들을 받아 쓰겠습니까? 7)

둘째는 ‘앞에 나온 그’로 해석되는 他인데, 선행하는 他的 지시대상 어구가 동격후항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시대상을 가진 경우이다. 他는 외형상 앞의 어떤 어구를 지시하지만 실제로는 지별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경우의 他를 ‘那, 那些’의 遠指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 他는 稱代詞의 동격구조를 매개로 하여 遠指 지시대사 ‘그(其)’의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他가 ‘다른’의 旁指 등 여러 기능을 함께 갖고 있음에 비추어 매우 특수한 현상이며 일종의 남용에 따른 일탈이라 할 수 있다.

- (20) 師有時云：“我向前一老宿處，有个師僧同過夏。夏滿請益云：‘乞和尚指示个正因。’他老宿云：‘你莫栖束，正因中一字也無。’…… 福先拈問僧：“如今須符他正因，不得污著，作摩生道？”(石霜)

선사(石霜)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한 노숙에게서 지낼 때 어떤 스님이 함께 여름을 지냈다. 안거가 끝나자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正因을 지시해주십시오’라며 (그 스님이) 말씀을 구하였다. 노숙은 대답하기를, ‘그대는 보채지 말라, 正因의 한 글자도 없거늘’ 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당집》 他 동격구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논의 내용을 요약하

- 7) 달리, “여러분 몸에 걸친 것은 남의 옷, 식당에 있는 것은 남의 음식”으로 읽으면 他는 ‘남’의 뜻이고, 是他를 遠指의 지시대사 ‘그’로 보면(劉墉) “여러분 몸에 그 옷, 식당에 그 음식들”로 읽게 됨.

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본고는 《조당집》에 쓰인 他의 총 용례 372개 가운데서 60여개를 동격구조로 분석하였는데, 그 가운데 단 두 개의 삼항동격을 빼고는 모두 이항동격으로서, 동격 후항이 전항을 해설하는 '~~인 他'의 형식이다. 이들 他 동격구는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 주어 겹어 관형어를 담당한다. 他 동격구가 이처럼 여러 문장성분에 동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현대중국어의 '虛指 목적어 他'가 《조당집》에 보이는 것과 같은 동격구조에서 연원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1장 예문 (4㉞㉟)의 虛指형식은 위에서 《조당집》에서 남용된 동격구들 가운데서 목적어 위치에 온 것이 후기의 문법형식 정제 과정에서 채용되어 유지·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격 전항에 사용된 他의 의미는 후항이 표시하는 의미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먼저 삼인칭과 旁稱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삼인칭으로는 인간, 물건, 사태·개념 그리고 처소를 표시하는 후항과 결합하여 '그이, 그것, 그일, 그곳'을 稱代하며, 旁稱으로는 인간, 시간, 처소를 표시하는 후항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 다른 곳(바깥), 이 후(미래)'를 稱代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三人稱 대사 他의 기능(인간, 물건)에 비해 사용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방칭과 방지를 포함한 전체 기능과 함께 고려하면 他라는 하나의 형태가 너무 많은 기능과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조당집》 他의 용법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他	인간	물건,사태,개념	시간	장소
삼인칭	'그이'	'그것'	['거기'] ⁸⁾	
방칭	'다른사람,남'	'다른 것'	['이후']	'다른곳,밖'
방지	'다른'	'다른'	'다른,미래의'	'다른'
	他人	他事	他日	他方

3. 동격 후항은 명사 뿐만 아니라 명사구, 동사구, 동격구, 의문대사 誰 등이 사용된다. 동격 후항의 첫머리가 有情 명사인 경우에는 他에 대응하는 동격후항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결침(兩可)의 상황은 제한적인 '대사+인간' 형식에서 출발한 동격구조가 인간명사 이외의 다양한 단어들을 동격후항으로 사용하고, 동사 뒤에 복잡한 형식의 동격구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언어대중의 어감에 구조관계 판단의 혼란이 생겨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는 《조당집》에서 어떤 명사 앞의 他를 해석할 때, 그것

8) 용법 중 []로 씌운 '거기'와 '이후'는 동격구조(他彼中, 他後)에서만 보임.

이 '다른, 미래의'를 뜻하는 방지의 관형어인지 아니면 '그이, 그것, 남, 다른 곳'을 뜻하는 삼인칭·방칭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며, 삼인칭·방칭인 경우에는 다시 그것이 뒷명사의 관형어인지 아니면 동격전항인지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처럼 唐五代 시기의 他가 삼인칭·방칭·방지의 대사로서 지나치게 많은 기능과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새로운 문법형태가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남용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남용에 따라 어떤 동격구는 동격후항 판별에 관한 구조인식이 애매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험거운 구조관계가 '虛指 목적어' 형식 출현의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사 他의 허화의 다른 경로인 방입[縱予] 표현 그리고 '知他'류의 남용, 일부는 他와 평행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사들의 용법,⁹⁾ 그리고 他 동격구조가 표현한 어감 등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參考文獻】

- 《祖堂集(1,2)》, 한글대장경 사전부1·2, 동국역경원, 월운스님 역, 1994, 428+365. 초판 1·2권을 각각 한글대장경 제183·184권으로 1981·1983년에 출판.
- 《祖堂集》, 高麗大藏經 第45, K.no.1503, 233-361쪽, 1976년 東國大學校 譯經院 출판
- 《祖堂集》, 據日本花園大學圖書館藏高麗覆刻本影印, 禪學叢書之四, 柳田聖山 主編, 中文出版社, 1972, 385쪽.
- 《祖堂集》, 佛光大藏經 禪藏 15,16, 1994년 12월, 臺灣:佛光出版社, 992쪽. [楷化校點本]
- 《祖堂集》, 吳福祥, 顧之川 點校, 長沙:岳麓書社, 1996, 458쪽. [楷化校點本]
- 《景德傳燈錄(1-4)》, 佛光大藏經 禪藏 1-4, 1994년 12월, 臺灣:佛光出版社, 1955쪽.
- 《五燈會元(上中下)》, 宋 普濟 著, 蘇淵雷 點校, 1984년, 북경:中華書局, 1418쪽.
- 《禪學辭典》, 李哲教, 一指, 辛奎卓 편, 1995년 8월, 서울:佛地社, 986쪽.
- 《禪學大辭典》, 駒澤大學 禪學大辭典編纂所, 1985년 新版第1刷, 동경:大修館書店.
- 《唐五代言語詞典》, 江藍生, 曹廣順 편저, 近代漢語斷代語言詞典系列, 1997년 11월, 上海教育出版社, 480.
- 袁賓 1994 《禪宗詞典》, 湖北人民出版社, 703.
-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長沙:岳麓書社, 1996, 500.
- 盧列紅 1998 〈『古尊宿語要』代詞助詞研究〉, 武漢大學出版社, 1998, 30쪽~

9) 제1장 예문 (2)의 其姉 역시 其가 삼인칭 '그이'로 동격구를 구성한 것으로 보게 됨.

- 呂叔湘,江藍生 1985 《近代漢語指代詞》(三身代詞),上海:學林출판사, 415.
- 志村良治/江藍生,白維國 역 1995 《中國中世語法史研究》,北京:中華書局, 457. 제94쪽.
- 俞理明 1988 〈從漢魏六朝佛經看代詞‘他’的變化〉,中國語文 1988:6, 469-471.
- 唐作藩 1980 〈第三人稱代詞‘他’的起源時代〉,北京大學中文係 《語言學論叢》 第6輯,55-63
- 郭錫良 〈漢語第三人稱代詞的起源和發展〉,北京大學中文係 《語言學論叢》 第6輯, 64-93.
- 劉堅 1992 《近代漢語虛詞研究》,北京:語文出版社,‘詞綴’是’
- 植田均治/俞光中 역, 1999 《近代漢語語法研究》,上海:學林出版社, 461.
- 向熹 1998 《簡明漢語史》,北京:孤燈教育出版社, 하239.
- 趙元任(Chao Yuen ren)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and Los
versity of California Press,1970년 재판.(臺北 敦煌書局 影印本 1981) 847
- 林明花 1991 〈현대중국어의 變實語文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32.
- 張志公 1953 《漢語語法常識》,(上海:新知識出版社), 232.
- 魏培泉 1980 〈漢魏六朝稱代詞研究〉,臺灣大學 박사논문, 382.
- 王力 1980 《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 614.
- 太田辰夫/江藍生,白維國 1991 《漢語史通考》,重慶출판사, 352.
- 오오마 다즈오(太田辰夫) 1957 《中國歷代口語文》,東京:江南書院, 155.
- 志村良治 저, 江藍生 白維國 역 《中國中世語法史研究》 94쪽 ‘他’

【中文提要】

本文從祖堂集裏面的372個代詞‘他’當中分析出來60幾個構成同位結構的‘他’。

祖堂集裏的‘他’同位詞組的特點可以歸納如下:1)擔當賓語·主語·兼語·定語等各種句子成分。2)語義結構都是後項解釋前項的形式。3)除了兩個三項同位詞組以外,都是兩項同位詞組。

做爲同位前項的‘他’的意義能按照上下文和後項的意義而辨別,可分成三人稱和旁稱的兩類。三人稱的同位前項‘他’可以稱代人,物,事,態,觀念,處所;旁稱的可以表示別人,另外的人;別的東西;以後;別的地方,外邊。跟‘他’的一般稱代用法相比,這些用法是太廣泛的,也可以說是‘濫用’。

同位後項是除了簡單的一個名詞以外,還有名詞詞組·動詞詞組以及同位詞組和疑問代詞‘誰’。如果同位前項‘他’的後面接着來一個有情名詞(人),跟‘他’配合的後項有時是不好確定範圍:是那個有情名詞跟後邊的詞語結合成一個同位後項,或者是有情名詞自個兒擔當同位後項。

總之,代詞‘他’在祖堂集裏擔當太廣泛而複雜的功能這個現象,也可以說是三人稱代

詞‘他’這一個新興語法形態在定型化過程當中出現的一種‘濫用’現象。這種濫用造成的籠統鬆散而不嚴緊的語法結構關係好像跟‘虛指賓語’的出現有着一定關係。

【주제어】

동격, 남용, 삼인칭, 방칭, 방지, 허지, 허화, 정형화, 구조관계